

# 사회적기업 공동브랜드 신제품 출시

### 전북도, 런칭행사 추진 7개 기업 8개 신제품 선보여... 온-오프라인 할인행사 진행

전국 최초 민간주도로 전북 사회적기업 공동브랜드 8개 신제품이 선보였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생생나눔매장에서 고재욱 일자리경제정책관 및 사회적기업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기업 공동브랜드 신제품 런칭행사를 추진했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기업 공동브랜드 'So-Good' 생산제품 출시에 맞춰 신제품을 홍보하고 판로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10월 28일 전북도, 전주시, 사회적기업(10개 기업)간 체결

했던 '사회적기업 공동브랜드 생산제품 마케팅 활성화 업무협약'의 후속작업으로 진행했다.

전북도에서는 올 2~4월 중 마케팅 전문가 및 시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는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열악한 사회적기업들이 시장진출 및 판매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동브랜드를 개발해 시장에 진출해야 함을 공감하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그간 자치단체가 주도해 만든 딱딱하고 소비자와 동떨어진 공동브랜드와는 분명히 차별성이 있어야 하며, 또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해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데에도 서로 의견을 모아 공동브랜드 사업을 시작했다.

전북도와 전주시에서는 사회적기업 공동형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통해서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이후 (유)테미즈를 비롯한 KSEA에서는 사회적기업과 간담회, 의견교환을 진행했고, 현재까지 7개 기업이 공

동브랜드 제품개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모아 공동브랜드 제품을 출시하게 됐다.

이날 런칭행사는 지난 25일까지 3일간 생생나눔매장(한울생협)과 옥션, 11번가 등에서 8개 제품에 대해 온-오프라인 동시에 할인행사를 진행했다.

도 관계자는 "공동브랜드 생산제품에 대해 향후 제품에 대한 경쟁력, 소비자들의 반응 등을 분석해 공공기관에 대한 공공구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안희정, 김대중·노무현 정신 이을 책임자”

### “기회주의자는 대통령 출마 자격 없어”... 반기문 총장 강력 비판

아연의 대선 잠룡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이어나갈 수 있는 책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 23일 전북을 방문한 안 지사는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칙과 상식을 세우내는 시민정신 그것이 김대중·노무현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그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정치적 소신을 밝혔다.

또 이날 안 지사는 “기회주의자”를 언급하며 대선 출마 의지를 표명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강력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모든 정당과 대통령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제안한다”며 “절대 기회주의자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극히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됐으면 하는 언론 질문에 항상 “좋은 사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며 “좋은 사람은 신의가 있는 사람이며, 그간의 정치 과정과 인생 과정에서 달란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들은 절대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원칙있게 정치해야 하며,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화려한 이력과 잘 나고 출세했다는 이력은 국민을 위한 인생이 아닌만큼 속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고, 현재 지지율은 최종 후보를 선택하는 데 참고자료는 될 뿐, 결정하는 최종 기준은 아니다”며 “정권 교체의 최종 공격자가 누가 될 것인지는 당원과 국민들이 선택할 것이

며, 체력을 다지고 공격을 향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전 대표와의 차별성을 묻는 질문에는 “저는 저이고 문재인은 문재인일 뿐”이라며 “저 다음으로 당당하게 선택받고 싶다”고 말했다.

개헌 논란과 관련해서는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당장 대선을 앞두고 개헌을 매개로 정당을 흔들고, 정당 구조를 재창조하려는 움직임은 피리가 몸통 흔드는 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개헌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개헌논의의 합의를 마련해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두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안희정 지사는 이날 전북에 머물며 특강과 대학생(청년) 만남 등의 행보를 이어갔다. /인재용 기자



지난 23일 전북을 방문한 안희정 충남지사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도, 블로그 기자단 모집 경쟁률 4.5대1

### 40명 모집에 181명 지원... 내년 1월 13일 발대 예정

전북도가 여행, 문화, 정책 등 다양한 소식을 인터넷에 널리 알리고자 추진하는 '2017 전라북도 블로그 기자단' 40명을 선발했다.

2017 기자단 선발에는 40명 모집에 181명이 지원을 해 4.5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전북도가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한 블로그 기자들은 20~60대까지의 직장인, 여행·사진 전문블로거, 프리랜서, 대학생, 주부 등으로 구성됐으며, 부산, 광주 등 타지역 거주자도 선발돼 독특한 관점의 기사가 작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블로그 기자단의 발대식은 내년 1월 13일 도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기

자단은 전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을 취재해 전북도청 블로그 '전북의 재발견' (<http://blog.jb.go.kr>)을 통해 네티즌에게 알리게 된다.

기자단에게는 취재활동에 따른 소정의 원고료 지원과 함께 전북도가 주최하는 행사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활동이 우수한 기자에게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한편 전북도청 블로그는 '전북의 재발견'이라는 이름으로 2009년 4월 개설된 이후 하루 평균 3,000여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한국블로그 산업협회 주최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공공부문 광역지자체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인재용 기자

## 김승환 교육감, 공약 이행율 69.2%

### 41개 공약사업 중 방송통신중설 설치 등 7개 사업 완료 · 33개 사업 정상 추진

임기의 반화점을 맞은 김승환 교육감이 69.2%의 공약 이행율을 보이고 있다.

23일 도교육청은 김 교육감의 41개 공약사업에 대한 이행사항을 점검한 결과 7개 사업이 완료됐으며 33개 사업이 정상 추진되는 등 69.2%의 이행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공약사업에는 680억원이 투자됐다.

김 교육감의 공약사업은 안전한 학

교, 참된 학력신장, 교육정의 실현, 교육복지 확대, 농어촌·원도심학교 활성화 등 5대 분야 41개 사업이다.

이 중 완료된 사업은 7개 사업이다. 통학차량 지원 확대, 마을예술학교 운영, 방송통신중학교 설치, 부패방지 시스템 강화, 도서벽지 장기근무교사 별도선발 배치, 체험학습 관광벨트 조성 등 7개 사업이 완료됐다.

안전한 학교는 친환경 급식, 학교시

설 감성화,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등 8개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고, 참된 학력 신장 분야는 전북형 평가제도 구축, 인문독서교육, 직업진로체험활동 활성화 등 7개 사업으로 76.8%의 이행율을 보였다.

교육정의 실현 분야는 학교자치, 학교업무 최적화, 공립대안교육 특성화 고 지정, 전북교육 거버넌스 구축, 교직원 관사 확대, 투명한 인사제도 등

15개 사업이 63.2%의 이행율을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학생안전관리 지원조례, 원도심학교 운영조례, 농어촌교육발전 기본조례, 학생의 정규 교육과정 및 학습 선택권 보장조례 등 5개 자치조례를 제정했다. 또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 구입조례 등 10건의 자치법규를 개정했다.

이와함께 학생진로직업체험차 확보, 학생 안전권 보장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주 등 민간이 참여하는 공약관리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공약 이행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 전북도, 지역안전지수 워크숍 개최

도내 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문가와 도, 시군 담당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시군·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지역안전지수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가 진단한 분야별·시군별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

야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역안전지수 워크숍을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와 시군에 대한 전문가 진단으로 내년도 중점 개선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군에서 취약한 노인교통사고, 보행자 사망률, 감염병 발생, 자살자 등에 대한 전문가 진단과 함께 각 시·군 추진 방향에 대한 공유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재용 기자

정읍시공고 제 2016-1223호

### 관청~주산선(군도4호) 도로확포장공사 보상계획 열람공고

정읍시에서 시행하는 관청~주산선(군도4호) 도로확포장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권에 대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항, 제3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권리자)께서는 보상대상 토지 및 지장물권 조사 등을 열람하시고 편입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의 신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관청~주산선(군도4호) 도로확포장공사
2. 사업시행자 : 정읍시청
3. 사업기간 : 2017. 1 ~ 12월
4. 보상대상 : 아래 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권에 대한 권리인체  
※ 편입예정면적은 지적(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확정면적임

구분	공사명	사업명	사업의 위치	편입토지	면적(㎡)	지장물
군도	관청~주산선(군도4호) 도로확포장공사	- 도로확포장 L=0.5km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971-971-3번지	불입함조		불입함조

5. 열람 및 이의 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016. 12. 26 ~ 2017. 1. 10까지(15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정읍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 ☎(063-539-5824)  
다. 열람내용 : 편입토지 및 지장물권조사, 설계도서(열람장소 비치)  
라. 이의신청 방법 : 토지조사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동 열람기간 내에 이의서(불입함양식)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보상시기 : 2017. 1 ~ 2월  
(※ 근저당, 가압류 등과 같은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사전 말소 후 협의보상 가능)
7. 보상금 산정방법 및 절차  
가. 토지보상법 제68조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보상가격으로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나. 토지보상법 제68조제2항 규정에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고한 보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읍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정평가추천서 양식)**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본인인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인감증명서 첨부)하여야 하며,

토지소재지	편입지번	편입면적(㎡)	소유자		인감날인	전화번호	감정평가업자
			주소	성명			

한전 중부전 공고 제2016-1호

### 본 요 개 장 공 고 (제1차)

산업자원부 고시 제2015-253호(2015.12.10)로 시행하는 154kV 신남원-남원 송전선로 건설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소재하는 아래 분야에 대해, 당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요를 개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아래의 신고처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야는 무연분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의 절차에 의해 임의 개정(이장)할 수 있음을 공고합니다.

1. 요지 또는 본요의 위치 및 장소

본요소재	지번	지속	기수	비고
남원시 이백면 영가리	산71-1	임야	1기	154kV 신남원-남원 송전선로 건설사업 필담번호 3호
남원시 식정동	산55	임야	1기	154kV 신남원-남원 송전선로 건설사업 필담번호 15호
남원시 고죽동	산90	임야	1기	154kV 신남원-남원 송전선로 건설사업 필담번호 22호
남원시 고죽동	산94	임야	2기	154kV 신남원-남원 송전선로 건설사업 필담번호 23호
2. 개정방법
  - 유연분요 : 연구자(관계인)가 신고 후 합의이장(이장비 지급)
  - 무연분요 : 공고기간 경과 후 사업시행자(공고자)가 임의개정 후 납골당 인치
3. 무연분요개정 후 인지장소 : 전라북도 남원시 송화동
4. 개정시유 : 154kV 신남원-남원 송전선로 건설사업
5. 공고기간 : 2016년 12월 26일 ~ 2017년 03월 26일(3개월간)
6. 신고 및 문의처
  - 한국전력공사 전북건설지사 토건부 ☎(063) 240-5888
  - 남원시청 여성가족과 ☎(063) 620-6192
7. 신고서류 : 매장자와 연구자간의 연구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사실확인서, 기타 증빙서류 등
8. 기 타 : 상기 공고기간 내 연구자의 신고가 없는 분야 및 개정되지 않은 분야에 대하여는 무연분으로 간주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자가 임의개정 하겠으며, 추가로 발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위 공고인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처 전북건설지사장